

사회



'광화문 연가' 추억속으로... 24일 광주문화예술포럼 대극장에서 열린 뮤지컬 '광화문 연가' 공연 후 배우와 관객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며 유쾌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광주일보사 주최로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계속된 공연에는 4000여명의 관객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24일 광주문화예술포럼 대극장에서 열린 뮤지컬 '광화문 연가' 공연 후 배우와 관객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며 유쾌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광주일보사 주최로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계속된 공연에는 4000여명의 관객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큰 일교차에 감기환자 급증

고열·몸살...평소보다 20~30% 늘어 소아 눈병·영유아 수족구병도 요주의

최근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는 급격한 기온 변화에 꽃가루, 황사까지 더해지면서 봄철 감기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24일 광주지역 소아과와 내과·이비인후과 등에 따르면 4월 중순들어 한 낮에는 초여름 가까운 날씨를 보이다가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지는 등 일교차가 커지면서 고열·몸살을 호소하는 감기 환자들이 평소보다 20~30% 늘어 병원마다 북새통을 이

루고 있다. 이번 감기는 아데노 바이러스나 리노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많은 편으로 감염되면 고열, 몸살, 콧물, 비염 악화 등의 증상을 보이며 심할 경우 5일 이상의 고열에 시달리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소아의 상당수는 감기가 진행되는 과정에 인두결막염과 같은 눈병에도 시달리고 있어 부모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에 황사와 꽃가루가 날리면서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어린이나 천식에 시달리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그 증세가 악화하기 십상이기 때문에 폐렴 등의 합병증에도 각별한 경계가 필요한 시기다. 이와 함께 이달 들어 주로 5세 미만의 영유아의 입 안에 물집이나 궤양, 손과 발의 수포성 발진 증상을 보이는 수족구병이 지난 3월에 비해 10~20% 가량 증가추세에 있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의 관심이 절실하다. 보통 수포는 쌀알 정도의 크기로 가렵거나 통증이 없어 고통을 호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수족구병을 방치하면 바이러스가 혈관을 타고 퍼져 뇌수막염, 간염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자녀가 고통을 호소하지는 않더라도 이 같은 증상이 있다면 즉시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24일 오전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은 김모(40)씨는 "아홉살 난 딸이 사흘 전부터 심한 열과 기침에 시달리면서,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해 병원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려아동병원 감염병의 원장은 "식수는 반드시 끊어서 섭취하는 것이 좋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과도하지 않은 운동과 충분한 수분섭취, 적절한 실내 습도 조절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검찰 '좀비PC·원격조종' 역추적

농협 전산망 마비 수사... '사이버 테러' 수사력 집중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24일 외부에서 '좀비 PC'나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서버 파괴를 실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내외 관련 IP(Internet Protocol)를 역추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특정 목적을 겨냥한 '사이버 테러'일 개연성에 무게를 싣고 추적 작업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마비 사태가 발생한 지난 12일 이전 수개월간 서버운영 시스템 삭제명령의 진원지인 한국IBM 직원의 노트북에 접속된 흔적이 있는 수

백 개의 IP 가운데 경로와 성격이 의심스러운 IP를 역추적해 사건과의 연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사태 발생 당시 노트북이 유선랜(LAN)으로 인터넷에 연결돼 있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외부에서 좀비 PC를 활용하거나 원격조종 등을 통해 노트북에 삭제명령 프로그램을 심

거나 실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삭제명령으로 피해를 본 서버 275대 가운데 일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다수의 '외부 침입 흔적'이 이런 수법과도 연관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프로그램이 노트북 키보드로 직접 입력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으며, 노트북에 수차례 접속된 것으로 확인된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통한 입력 정황은 아직 밝혀지지 못한 상태. /연형뉴스

박승희 열사 20주기

전남대서 추모행사

박승희 열사 20주기 행사 위원회(이하 행사위)는 26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전남대 교정 등지에서 박승희 열사의 2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행사위에 따르면 26일 북구 용봉동 전남대 1학생회관에서 박승희 열사 20주년 추모행사 기자간담회와 추모사진전·문집 등)과 정신계승사업(문화제, 장학재단 설립 등)으로 구성된다.

29일에는 모교인 목포 정명여고에서 박승희 열사의 흉상 제막식이 개최된다. 한편, 박승희 열사는 1991년 4월 29일 정권 타도 등을 외치며 분신, 같은해 5월 19일 숨졌으며 2005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 /양수현기자 yang@

29일에는 모교인 목포 정명여고에서 박승희 열사의 흉상 제막식이 개최된다. 한편, 박승희 열사는 1991년 4월 29일 정권 타도 등을 외치며 분신, 같은해 5월 19일 숨졌으며 2005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 /양수현기자 y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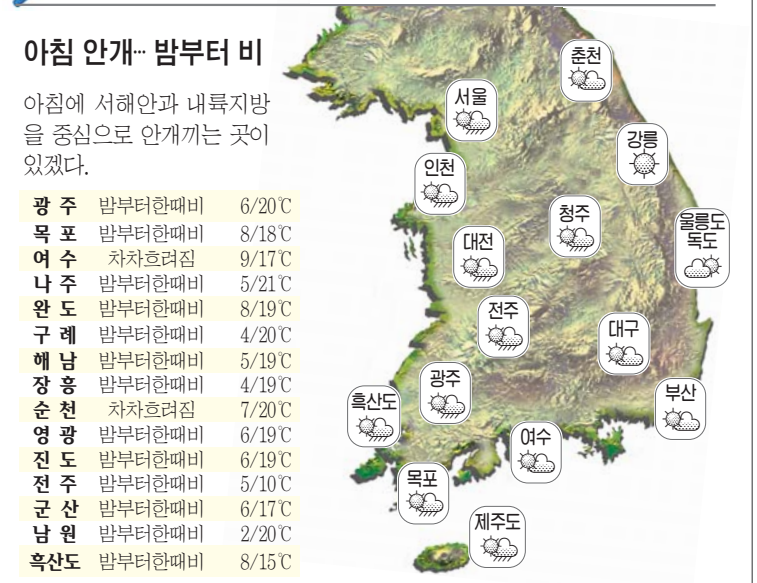
남구 공무원 40명

중소 후원인 지정

광주시 남구는 24일 지역 중소기업의 고충과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구청 6급 공무원 40명을 중소기업 후원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남구는 각 중소기업에 후견인 지정 증서를 수여한 뒤 기업 대표와 담당 공무원을 연결해 각종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단순한 사항은 즉시 해결해 준다는 계획이다. 또 자체 처리가 어려운 사항은 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이 기업상담 TF팀이나 유관기관의 자문을 받아 결과를 해당 기업에 알려줄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공무원을 1대1로 연결함으로써 소통 창구 역할을 물론 지역 경제를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오늘 날씨



지역	기온	바다	풍향	풍속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꽃가루지수
광주	6/20°C	남부	남서	1.0~2.0	0.5~1.5	높음	주의	낮음
목포	8/18°C	남부	남서	1.0~2.0	0.5~1.5	높음	주의	낮음
여수	9/17°C	남부	남서	1.0~2.0	0.5~1.5	높음	주의	낮음
나주	5/21°C	남부	남서	1.0~2.0	0.5~1.5	높음	주의	낮음
완도	8/19°C	남부	남서	1.0~2.0	0.5~1.5	높음	주의	낮음
구례	4/20°C	남부	남서	1.0~2.0	0.5~1.5	높음	주의	낮음
해남	5/19°C	남부	남서	1.0~2.0	0.5~1.5	높음	주의	낮음
장흥	4/19°C	남부	남서	1.0~2.0	0.5~1.5	높음	주의	낮음
순천	7/20°C	남부	남서	1.0~2.0	0.5~1.5	높음	주의	낮음
영광	6/19°C	남부	남서	1.0~2.0	0.5~1.5	높음	주의	낮음
진도	6/19°C	남부	남서	1.0~2.0	0.5~1.5	높음	주의	낮음
전주	5/10°C	남부	남서	1.0~2.0	0.5~1.5	높음	주의	낮음
군산	6/17°C	남부	남서	1.0~2.0	0.5~1.5	높음	주의	낮음
남원	2/20°C	남부	남서	1.0~2.0	0.5~1.5	높음	주의	낮음
옥산도	8/15°C	남부	남서	1.0~2.0	0.5~1.5	높음	주의	낮음

내일 강풍 불고 많은 비

광주·전남·북지역은 25일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26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과 전주기상대는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25일 차차 흐려져 밤에 서해를 시작으로 비(강수확률 60%)가 내리겠다"며 "비는 26일 새벽에 전 지역으로 확대되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24일 예보했다. 25일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4도~9도, 낮 최고기온은 16도~21도로 일교차가 10~15도 가량 벌어지겠다. 26일에는 강풍을 동반한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농작물 시설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비는 26일 늦은 오후부터 차츰 그치겠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꽃집공원의 야생화

따뜻한 봄 햇살 받은 고양이 모습

(4) 흰팽이는

범의귀과에 속하는 '흰팽이'는 깊은 산지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이다. 줄기와 잎 등 전체에 흰 털이 나서 '흰팽이'라 불린다. 잎은 마주나고, 꽃은 연한 황록색으로 4월에 피며, 4개의 꽃받침잎이 곧게 서 꽃줄기 끝에 달린다. 팽이꽃류 중 꽃이 가장 커 '큰팽이'라고도 불린다. (박성배 내장국립공원 백암사무소 과장)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30,000원부터**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흠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